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오늘, 2022 년 3 월 25 일 14:15,
아리차(RM)에 있는 카스텔리 로마니 병원에서
우리 자매 리타, 돌로레스 프로리스 수녀님께서 수도생활 61 년, 84 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 대축일인 오늘, 아버지께서는 빠스토렐라의 즐거운 축성생활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살았던 우리 자매 돌로레스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돌로레스 수녀는 1937 년 8 월 25 일 산투루수르지우(CA)에서 태어나 1937 년 9 월 2 일
태어난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과 함께 어머니에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정신을 가져왔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1957 년 2 월 14 일 모원인 알바노 라찌알레에 입회해서 1959 년 9 월 2 일에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60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찌알레에서 첫서원을 하고, 유치원 교사로
세딜로(OR)에 파견되었습니다. 가르침과 종신 서원 준비에 바쳐진 시기였고, 종신서원은
1965 년 9 월 3 일, 모원인 알바노 라찌알레에서 했습니다. 세딜로에서는 1969 년부터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공동체의 장을 지냈습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유기서원기의 3 년동안을 돌로레스수녀와
세딜로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선하고 너그럽고 평화로운 자매였습니다. 몇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서 프리모 마에스트로에게 긴 편지를 써야한다는 영감이
왔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씩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면서, 축복과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죽음 몇일 전까지 기쁨과 열정으로 항상 기억했던 행동입니다.'

사목 현실에 들어가서 돌로레스 수녀는 두 개의 성당 공동체에서 그의 교육의 직무를 서로 다른 시기 동안, 기꺼이 계속해서 펼칠 것입니다. 즉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캄포(PG)이 있는 성마르티노 성당에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는 성에디지오(PG)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992년에서 2001년까지는 페루지아 공동체에서 본당 교리 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폰테 성 요한 공동체로 옮겼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는 페루자 몬테루체 지역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사목위원들의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2019년 당뇨병 때문에 병약해져서 모원인 알바노 라찌알레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수년 동안 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알바노 라찌알레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병중에서 사랑으로 돌로레스 수녀를 동반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로레스 수녀의 성소의 선물을 주신 선한목자예수님께 축복을 빌고 이 수녀님의 중재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위해 평화의 선물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총장

아민따 사르미엔또 푸엔테스 수녀

2022년 3월 25일 베로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